

13. 호세아 13 장, ‘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’

❖ 들어가기

오늘 살펴보는 호세아 13 장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‘우상숭배’, ‘교만’, ‘하나님을 대적함’, ‘하나님을 배반함’, 4 가지로 이야기하면서, 하나님의 심판은 ‘사자, 표범, 새끼 잃은 곰, 암사자, 들짐승, 동풍’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, 현대적 의미의 우상들을 제거하고,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.

1.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(1-3 절)

1) 먼저 하나님은 ‘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’고 말씀하시며, 지난 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. (1 절)

- 에브라임 족속은 초기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음!
 - 참고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막내 아들이며 므낫세의 동생이었지만,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를 축복하시므로(창 48 장 13-22 절)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겨루는 힘있는 지파로 성장하게 됨!
 -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될 때,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‘여로보암’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,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!
-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! => 곧 자기를 높이며, 바알을 섬기다 망했음!!
 - 참고로 여기서 ‘망했다’의 히/원어는 ‘야모트’란 말로, 이 말의 어근 ‘무트’는 ‘죽었다’는 뜻!
 -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죽고 패망했다는 것!!
 -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‘여로보암’은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고, 이후 아합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광적으로 섬기며 온 나라를 영적 패망의 상태에 빠지게 함!

2)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, 그 우상에 입맞추며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하심. (2 절)

- 초기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악한 왕들에 의한 반강제적 혹은 상황적 무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, 호세아 시대의 우상숭배는 백성들 스스로가 ‘자기를 위하여’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고, 적극적으로 섬긴 고범죄들임!
- 특별히 호세아는 저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에 입맞추었다고 고발!!
 - 성경에서 입맞추는 행위는 입맞춤의 대상을 극히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!!

3) 그럼 이같이 자발적으로 우상숭배를 행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였나요? (3 절)

- ①.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! => 아침 구름과 이슬 = 태양이 뜨면 사라짐!!
 -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행한 저들의 삶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질 것!!

②.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을 것

- '타작 마당', '광풍'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상징하는 단어들임.
- '쪽정이'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쉽게 패망하는 존재를 상징. (ex, 시 1:4, 사 17:13, etc)

③.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!

- 연기는 바람과 함께 공중에서 형체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 (시 37:20, 102:3)
-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던 북이스라엘의 최후도 연기처럼 형체도 남기지 못한 채 완전히 소멸될 것이란 선언!!

- 결국 이와 같은 비유들은 곧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창하고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,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순간에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!!

2. 부유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(4-8 절)

1)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저들의 구원자였고,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심. (4 절)

- 특별히 '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' 는 말씀은 => **오직 하나님만을 알라는 말씀!!**
 - 여기서 '안다'의 히/원, '야다'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을 넘어,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신뢰를 인격적으로 쌓아가면서 깨달아 알라는 것!!

2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, 마른 땅에서 저들을 먹이시며 보호하셨지만, 저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책망하심! (5-6 절)

- 특별히 6 절 주목!

'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, **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!**

- 우선 '먹여 준대로'의 히,원 '케말이탐'은 기름진 초장에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표현하는 말!
-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배불러진 이스라엘은,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,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!!
- 결국 물질적인 축복이 교만으로 이어졌고,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면서, 우리는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, 더욱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!!

3) 그럼 이와 같이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나요? (7-8 절)

- 하나님은 '사자 같고', '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', '새끼 잃은 곰 같고', '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고', '들짐승이 그들을 찢듯이'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심!!
 -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처참하게 대하실 지를 느낄 수 있음! 곧 그 만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!!

3.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(9-16 절)

1)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자신들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!! (9 절)

- 특별히 하나님은 ‘이미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셨다’고 현재 완료형으로 선언!!
 -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!!
 -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, 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,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다면, 이미 저들은 패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!!
- 2)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며 조르던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심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주었고, 또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패하셨다고 지적하심!! (10-12 절)
- 참 재미있는 말씀이다!
 - ①. 우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다고 했음!
 - =>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를 스스로 버리고,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졸랐다는 말씀!!
 - ②.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**분노하심으로 주셨고**, 또 그들을 **진노하심으로 패하셨다**고 하심!!
 - => 여기서 ‘주셨고, 패하셨다’는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됨!!
 - => 곧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!!
 -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가를 스스로 버리고, 왕을 달라며 하나님께 도전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왕을 허락하셨지만, 그 왕들과 함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숭배를 행하며 더 많은 죄를 지었고,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왕과 지도자들을 진노하심으로 패하자 저들은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조르고 범죄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!!
 - ③.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하나 하나 다 잘 정리되어 있고,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음!
- 3) 그로 인해 ‘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’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, 북이스라엘을 지혜 없는 자식으로 비유하심!! (13 절)
- 우선 여자가 출산할 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? 그런데 만일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이가 산모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, 그것은 산모에게 정말로 큰 위험이 닥친 것!!
 - 그런데도 지혜 없는 자식 곧, 어리석은 자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!!
 - =>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헤 메이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!!
- 4)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,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는 건져주시길 것이라 약속!! (14 절)
- 참고로 14 절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
 - ①. 긍정적인 관점 (개혁한글)
 - ‘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’

- 곧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,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암시하신 말씀으로 보는 견해!

②. 부정적인 관점 (표준 새번역 2nd 번역)

‘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 주고 그들을 스올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나?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나?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.’

- 곧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확실히 임할 것으로 보는 견해. (참고로 칼빈은 두 번째 견해를 따름)

-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따르나, 어느 해석을 따르든 문맥상 문제는 없을 듯..
-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며,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!!

5) 하나님은 14 절에서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,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실하게 선언하셨음! (15-16 절)

①. 동풍이 와서 근원이 마르며, 샘이 마르고, 쌓아 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될 것!

=> 지난 시간 목상했듯이 동풍은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 바람!

=> 본 절에서는 ‘여호와와 바람’이라 표현!!

=>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바람!! => 앗수르를 의미!!

②. 결국 앗수르에 의해 하나님을 배반한 사마리아는 칼에 얹드러지고,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,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며 참혹한 전쟁으로 심판 받게 될 것!!

- 참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, 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고, 미리 보여 주셨음!!

• 신명기 28 장 15-68 절

-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,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!!

• 열왕기하 8 장

-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앗수르의 하사엘을 보면서 장차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미리 보면서 통곡하였음!!

- 열왕기하 8 장 12 절

‘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.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.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, 장정을 칼로 죽이며,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’

- 북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다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며,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기울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자!

❖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